# '전국 최대 물김 생산지' 해남군, 김 육상양식 도전

전남도·CJ와 컨소시엄 구성…350억원 투입해 시스템 개발 추진 명현관 군수 "수출 효자 김 양식 선진지로서 해남의 위상 높일 것"

해남군이 전남도, CJ제일제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양수산부 '김 육상양식 개발사업'에 도전에 나섰다.

전세계적으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김은 지 난해 전남도 수산물 수출품 1위로, 수출 1조원을 달성하며 '검은 반도체'라 불릴 정도로 수출 효자 종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 등으로 30~50년 뒤에는 해상 김 양식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속에해수부는 해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 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사업을추진한다.

3개 기관은 2029년까지 5년간 350억원을 투입 할 방침이다.

해남군은 올해 4월부터 CJ와 미래 김 양식산업 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 모사업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 CJ는 지난 2018년부터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는 가운데 육상양식 수조를 10톤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김 육상양식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 최대 물김 생산지이자 100여개 소에 이르는 최대 가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지난 해 사상 최대인 1138억원 판매고를 올렸다.

2023년에는 전국 최초로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김 육상양식 개발사업 이 본격 추진되면 미래 김 산업을 주도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김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해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며 "김 양식 선진지로서 해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 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앞바다 지주식 김양식장에서 어민들이 배에 올라오는 물김을 채취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성평등 기반구축 등 추진

목포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여성친화도 시'에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며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여성친화도시 5대 기본 목표는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증 진,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다.

목포시는 12월 19일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 한 뒤 앞으로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지위를

목포시 관계자는 "2024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까지 5대 기본 목표 달성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한 성과"라며 "관련분야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 2천여년 역사 구림 헤리티지 프로젝트 본격 추진…도비 180억 확보

### 영암군, 한국문화교육관 조성 등

영암군은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 도비 180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남도가 시·군의 자율 성장 정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진행했다.

영암군은 총 300억원 규모로 '전남 대표 K-culture 지역 육성, 글로컬 시대 영암 헤리티지 재 도약 프로젝트'를 공모해 최종 선정됐다.

2026년 본격 사업 시행으로 호남 3대 명촌 구림 마을과 구림관광지 명성을 되찾고 전통문화유산 이 살이 숨 쉬는 남도 역사문화 중심지 영암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22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구림마을에 왕인 박사, 도기, 한옥 등 다양한 전통문화유산을 기반 으로 영암의 멋(전통건축·목공)과 맛(전통음식· 술), 흥(전통문화·축제·행사)이 어우러지는 헤리 티지 리노베이션(Heritage Renovation)을 추진 하다

·더. 구체적 사업계획에는 ▲한(韓) 문화교육관(전



영암 군서면 구림마을 한옥.

문교육센터와 레지던시) ▲한식 체험관(체험장, 식당, 카페 등) ▲구림 르네상스관(아카이빙, 게 스트 쉼터 등) ▲한옥호텔(구림한옥체험관 리모 델링)▲구림 골목길 정비와 스토리 정원 조성(빈 점포 리모델링)등이 포함돼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왕인문화축제와 월출산국

화축제, 국립공원박람회, 한옥문화비엔날레 등 메가 이벤트부터 달빛 페스티벌과 캠핑관광축제, 반려동물문화축제, 마을축제 등 지역축제까지 기대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글로벌 문화관광도

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Welcome to Wando County 한국과 호주의 해조류산업간의 관계 구축을 위한 ASSA 산업대표단의 한국방문 2024, 11, 13,(4) 이 원도로 1091 임도를 찾은 증조 해조를 과런 도난데의 ASSA (Australian Sustainable Seawood Aliano

19일 완도를 찾은 호주 해조류 관련 단체인 ASSA(Australian Sustainable Seaweed Aliance ) 산업대표단이 신우철 완도군수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 '청정해역' 완도 해조류 우수성 호주도 '주목'

## 호주 ASSA, 완도 양식장 방문 해조류 기술 개발 협력체계 구축

완도 해조류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호주 해조류 관련 단체인 ASSA (Australian Sustainable Seaweed Aliance) 산업대표단이 완도를 방문했다.

19일 완도군에 따르면 ASSA 산업대표단의 조 켈리 대표 등 관계자 15명이 최근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과 가공업체,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등을 찾 았다. ASSA 산업대표단은 어패류 양식과 해조류 사업가, 대학 교수, 해양학회 관련 연구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완도 방문은 호주 외교통상부 지원으로 이 뤄졌으며 향후 한국과 호주간 양식 기술에 대한 정 보 공유와 해조류 관련 연구·개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ASSA 산업대표단은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해조류 산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톳 양식장과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종자연구소, 해조류 가공 업체 등을 차례로 견학했다.

조 캘리 대표는 "친환경적인 완도의 해조류 양식 방법과 해조류 관련 사업에 눈길이 모아졌다"며 "이 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해조류 산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ASSA 산업대표단 방문은 완도군 해조류의 우수성과 생산 시스템을 널리 알 리는 기회다"며 "호주와 해조류 관련 분야 연구·개 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진도군, 청년 창업스쿨 22일 개강

진도군이 오는 22일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정신 함양 교육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업 교육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창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론 교육 (마케팅 활용, 금융 관리, 세무·회계)부터 AI 기 술을 활용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디지털 교육 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진도군 청년센터에서 11월 22일부터 5주간 총 12회 진행 된다.

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며, 교육 희망 자는 11월 20일까지 진도군 청년센터에 방문하거 나 이메일(cjfak1130@naver.com)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 창업스쿨을 통해 지역 내 청년들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창업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창업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